

최경주 '널뛰기' 1R 1위 → 2R 13위 → 3R 10위

'톱 10 불씨'는 살렸다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 톱10 입상의 불씨를 살렸다.

최경주는 7일(한국시간) 하와이 마우이섬 플랜테이션골프장(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1타를 쳐 합계 2언더파 217타로 스텐튼 애플비(호주) 등과 공동 10위를 형성했다.

1라운드때 공동 선두였다가 2라운드 강한 바람 속에서 고전한 끝에 4타를 잃어버려 공동 13위로 처졌던 최경주는 이날도 바람이 완전히 숨을 죽이지 않은 가운데 보기는 1개

■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비제이 싱 11언더 선두

로 막고 버디 3개를 뽑아내면서 2타를 줄였다.

최경주는 합계 11언더파 208타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비제이 싱(피지)과 9타차여서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졌으나 개막전 톱10 입상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3언더파 70타를 치는 등 사흘 연속

언더파 성적을 내면서 2라운드부터 선두를 지킨 싱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40세 이후의 투어 우승 횟수를 '18'로 늘려 샘 스니드가 보유한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작년 시즌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자 애덤 스콧(호주)이 이날 4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11타로 트레버 이멜만(남아공)과 공동 2위에 올라 싱을 추격했다.

한편 대회 4회 우승에 도전하는 '개막전의 사나이' 애플비는 선두와 차이가 너무 벌어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비제이 싱이 7일 하와이 마우이섬 플랜테이션골프장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3라운드 14번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고종수 대전행 추진

'양광테리블' 고종수(29·사진)가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입단을 추진하고 있다.

최윤겸 대전 감독은 7일 "구단에 고종수의 영입을 건의했다. 고종수의 에이전트와 만난 구단 관계자로부터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고종수의 K-리그 복귀 가능성을 밝혔다.

11일 팀을 이끌고 키프로스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최 감독은 "족구 선배로서 재능있는 선수가 기량을 켜는 게 안타까웠다.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명예회복을 노리며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니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서 "입단을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팀에 합류해 서투르더라도 마치고 몸 상태도 한번 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윤겸 감독 "기회 주고 싶다"

원 소속팀 전남 이적동의 남아

하지만 고종수는 아직 대전과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오후 구체적인 조건 등을 조율하려던 구단 관계자와 고종수 에이전트 간의 만남은 에이전트 측 사정으로 무산됐다.

권도순 대전 이사는 "아직 구단 사장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종수로서는 원 소속팀 전남과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고종수는 2005년 말 전남 드래곤즈와 재계약에 실패해 '미계약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1년여 동안 개인 훈련을 해 왔다. 대전에 입단하려면 전남 구단의 이적 동의가 필요하다.

김종건 전남 홍보팀장은 "고종수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우리로서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 요청이 있어 야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텐데 계약이 끝난 뒤로 고종수 측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나 출신 첼시MF 에시엔

'2006년 아프리카 선수상'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부자군단 첼시의 가나 출신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엔(25·사진)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2006년 아프리카 축구선수상'을 받았다.

6일(한국시간)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에시엔은 팀 동료인 코트디부아르 출신 공격수 디디에 드로그바와 지난해 말 일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득점왕(3골) 이집트의 모하메드 아부트리카(알 알리) 등 경쟁 후보를 2배 이상 표차로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에는 지난해 치러진 각 후보들의 소속리그 경기에서의 활약 정도 뿐만 아니라, 유럽축구연맹(UEFA) 및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챔피언스리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월드컵, 클럽월드컵 등에서의 활약상도 반영된다.

PGA 월 맥켄지 호텔 객실 번호 공개돼 곤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있는 월 맥켄지(미국)가 호텔 객실 번호가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해프닝은 대회 1라운드가 끝난 지난 5일 골프 채널이 맥켄지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그의 호텔 객실 번호가 TV 화면에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이 너도나도 그의 방으로 전화를 걸어대면서 맥켄지는 방에서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맥켄지는 다음 날 "내게 전화를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싶다. 나는 정말

인터뷰 도중 TV화면에 드러나

시청자 전화 밤 늦게까지 쇄도

"피곤하지만 많은 격려에 감사"

많은 전화와 격려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나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들 때문에 전화기를 꺼놔야만 했다"고 말했다.

"어제 나는 중계방송에 많이 잡혔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좋아했던 모양"이라고 말한 맥켄지는 "속소에 돌아와 보니

이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팬들의 성원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번에는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비제이 싱의 방 번호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짓웃음 질문에 대해 그는 "아마 그랬다가는 비제이가 나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웃어넘겼다.

지난 해 8월 리노 타호 오픈에서 우승한 것이 유일한 PGA 투어 1승인 맥켄지는 이번 대회 3라운드까지 7언더파 212타로 1위 싱에 4타 뒤진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다.



<박태환> <한규철> <이지은>

"올해도 태극마크"

전남 소속 이지은·한규철 등 경영 국가대표 19명 확정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과 '전남 수영의 셋별' 이지은(18·전남제일고), 한규철(25·전남수영연맹) 등이 2007년 경영 국가대표로 새롭게 선발됐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5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경영 대표 선수 19명을 선발했다. 19명은 모두 도하아시아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로 구성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범태평양 수영대회와 도하아시아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낸 노민상(51) 경영총감독은 계속 대표 선수를 지도하게 됐고 방준영(42), 우원기(33) 코치도 유임됐다.

오는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선발된 새 대표 선수는 오는 10일 오후 태릉선수촌에 소집돼 11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합

숙 강화훈련에 돌입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훈련을 선언한 박태환과 기존에 개인훈련을 해왔던 한규철(전남수영연맹), 정두희(전주시청), 성민(경북도청), 류윤지(서울대) 등은 태릉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표선수 명단. ▲남자=임남균(인하대), 박태환, 강용환(강원도청), 성민, 이승현(삼천포고), 신수종(아산시청), 정두희, 한규철 ▲여자=류윤지, 이겨라(대성여상), 이지은, 이남은(효정고), 정유진(성서고), 정슬기(서울체고), 백수연(본오중), 신해인(북원여고), 최혜라(방산중), 권유리(창덕여고), 정지연(경기체고)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청소년축구 2-2 비겨

독일 2부리그팀과 평가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7월·캐나다) 준비를 위해 스페인에서 전지훈련 중인 한국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독일 2부리그 클럽과 평가전에서 2-2로 비겼다.

지난달 27일 출국해 스페인 세비야에서 담금질 중인 청소년대표팀은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레크레이티보 우엘바 구단 연습

구장에서 열린 독일 2부리그 SC파데르본과 연습경기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반 내리 두 골을 허용해 0-2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14분 이청용(서울), 39분 이상호(울산)의 연속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로써 대표팀은 스페인 전훈 중 치른 4차례 평가전에서 3승1무를 기록하게 됐다.

대표팀은 9일 세비야에서 독일 2부리그 소속 SV 바커 베르그하우젠과 평가전을 가진 뒤 마드리드로 옮겨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2군 팀을 포함해 세 차례 더 연습경기를 치르고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바노비치 "받을때면 받아봐"

7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테니스대회에서 세르비아의 아나 이바노비치가 호주 키예리와의 첫 라운드 경기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